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사순절 셋째 주입니다.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준비하실 때, 휴대폰으로 전달되는 성서일기 요약문과 주일설교 요점 암송카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은 공동생활 2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 두 가정에서 방역기구 셋트(발열검사, 소독약) 5대를 기증하셨습니다.
- 권재만목사님 어머니의 건강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김태규 청년이 군복무를 위해 15일(월) 입대합니다.
- 교회운영위원회가 오후 2시,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 공동체 학교 운영이사회가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모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꽂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10 호
2021년 3월 7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 랑 | 방 |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희망을 위한 시간

얼마 전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결과를 나타내는 설문기사를 보았습니다. 마스크 벗기, 가까운 사람과 만나서 밥 먹기 등 소소한 일상들을 꿈꾸는 것들을 재친 압도적 1위는 여행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새로운 여행지에서 여행을 하는 것보다도 함께 떠날 여행친구와 여행지를 고르기, 여행짐을 꾸리기, 캐리어를 끌고 공항버스 기다리기, 티켓팅을 위해 줄서서 기다리기, 면세점의 냄새 맡기,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서 있기 등 여행을 떠나기 전 기대와 설렘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누구의 생각보다 길고,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긴 바이러스와의 싸움 속에서 점점 지쳐가는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은 희망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번 주일은 벌써 사순절 셋째주일입니다. 이미 여러 번 언급되었던 것처럼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하면 40일간의 기간이 되며 40일이라는 기간을 한자로 표기해서 숫자 4를 의미하는 사(四)와 열흘 혹은 숫자 10을 나타내는 순(旬)자를 합쳐서 사순절이라 합니다. 또 성경에서 나타나는 4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노아의 방주로 잘 알려진 대홍수 때에 밤낮으로 비가 내린 기간도 40일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에서 방황하며 고난의 시간을 보낸 기간도 40년입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주기도문 돌판을 받기까지 금식기도하며 지난 기간도 40일이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서 시험 받으시며 금식하시던 기간도 40일이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기간도 40일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와 개인이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나 기간 중에 있을 때에 40일 금식기도, 혹은 40일 특별 새벽기도와 같이 그 기간을 정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 예비자들이 ‘회개’를 통해 세례를 준비하던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의미로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자신들이 받은 세례를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일에 힘썼던 기간이고 그 후의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40일 동안 금식하고 절제하며 죄를 회개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나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야 합니다. 그 선교와 섬김

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도 있습니다. 사순절의 기간은 회개와 절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그 자체로 희망의 시기인 것입니다. 대홍수의 40일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 약속하셨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약속의 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40일동안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지만 그 모든 걸 이겨내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약속된 부활의 주님을 보이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40일, 40년은 모두에게 고난이고 힘든 시기였지만 그 모든 것은 종살이와 죄에서 자유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40일간의 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온전히 돌아보며 절제하고 회개하는 그 수고가 어렵고 힘든 시간이겠지만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수고를 생각하며 부활의 기쁨을 소망한다면 희망으로 누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김없이 3월이 되고 사랑방공동체학교들은 개학을 했고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마찬가지로 반가운 얼굴을 직접 만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과 교사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매달 당연하게 떠났던 여행도 손꼽아 기다려봐야 하는 특별한 일이 되었고 밥을 먹는건지 이야기를 먹는건지 헷갈리던 식사시간은 이제 함께 할 수 없거나 침묵 가운데 식사만을 해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2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된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 줄 몰랐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시끌벅적하게 나누던 식사시간도, 따뜻한 햇살에 마당에서 피우던 이야기꽃도, 집에 가지고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던 꾸러기들도, 앞자리에 앉아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든든했던 무림 어르신들도 오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나 사순절이 희망의 기간인 것처럼 부활절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될 때이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따뜻한 희망을 맞게 되길 바랍니다. 만일 이 사순절의 기간이 더 길어진다고 해도 이 희망을 위해 흩어져있는 모든 사랑방의 식구들이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수고로 사순절의 기간을 희망의 기간으로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다운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수요기도회〉

성경 : 요한복음 21장

제목 :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삶

인도 : 최기찬 전도사

기도 : 나송주 집사

찬송 : 219 501 511 380 401 440 366 454

1-14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경위

관찰: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고기를 잡
게 하시고 식사를 함께 하셨다.(살아나신 뒤 세 번째 나타나심)

해석: 복음(예수그리스도)을 접한 사람은 제자가 되어야 한다.

적용: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예수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다.

5-19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것

관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
께서 아신다고 세 번 대답하자, 예수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해석: 양떼를 먹이고 나를 따르라 한 것은 예수의 제자로서 사는 삶을 말한다.

적용: 예수의 제자로서 선교(순교)의 삶을 살자.

예수를 그리스도임을 몸소 실천(고백)하는 삶을 살자.

20-25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관찰: 베드로가 예수께 사랑하시던 제자에 대해서도 묻자, 너와 아무 상관없
다고 말씀하셨다.

해석: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은 각자가 주어진 뜻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과 비
교하기 보다는 자신이 해야 할 것을 감당해야 한다.

적용: 비교하지 말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사명)을 잘 감당하자.

성서일기



신앙공동체는 교회의 본질을 추구한다

공동체라는 표현은 교회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관심에서부터, 교회의 참모습은 어떤 것인가? 교회가 이 땅
에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포함하여 교회를 어떻
게 개혁 또는 갱신할 것인가? 라는 다짐에 이르기까지 그 생각의 중심이 교
회에 있다. 나아가 공동체라는 표현은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의미이다.

공동체라는 표현에는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정리보다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처음 교회는 어떤 것인가? 역사에서 드러난 교회의 모습보다는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처음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교회 본질에 대한 관
심과 이러한 것들을 찾아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
님 나라의 견본이기 때문이다.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
함을 모두 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막1:14-15)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
건이 복음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기 때문이
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함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었다.

..... 공동체라는 표현은 교회에 대한 고백적인 표현이다. 즉 교회를
단순히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교회
를 고백하는 표현이다. 공동체를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의 삶
의 터전이라고 믿는다..... 또 교회는 세상의 역사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
님의 구원사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인 것을 믿는다.....

결국, 교회는 개인이나 사회, 인류적으로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약속하시면서 그 교회에 전
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마16:19) 신약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세상의 역사에서 박해와 순교를 받는 교회가 최종적으
로 승리하는 것을 말한다. 비록 지하 공동묘지에서 모이는 교회일지라도, 그
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사는 삶을 고백하는 성찬
식이 있는 교회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답이었다.

이상과 같이 ‘신앙공동체’는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데 신앙공동체의 본질
즉,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땅에 있는 하늘나라이다.

지체들의 삶

정태일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교회] 중에서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주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고백의 찬송
공동기도
목회기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성가대 찬양
설교

의탈과 설김의 삶

- * 의탁의 기도
 -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돋는 이들

안내 : 김충필 이현숙 / 봉헌위원 : 장미숙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수 서진이 옥대천

인도자 : 권재만목사
설교자 : 정재훈전도사

히브리서 4 : 15-16 일도자

23 다함께

영광 영광 다함께

이사야서 57:15 일도자

91 **다함께**

다함께
이도장

마태복음 3 : 13 - 17 설교자

144 사랑방

“세례. 의를 이루시는 예수” 정재훈전도사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정태일목사

공동기고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
저희도 겸손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세례, 의를 이루시는 예수

세례 요한은 출생부터 옷차림과 식생활까지 매우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헌신 된 사람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모든 사람에게 소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을 가졌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묻는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자신을 소개 했습니다.

예수님도 출생이 비범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도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께서 머리 위에 임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날은 매우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 땅에 드러나는 그 첫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는 이들이 순종하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을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고, 사랑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 뿐만 아니라 성부와 성령께서 친히 메시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시면서 메시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화되어 이웃을 함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전도사 / 기도 : 장미숙 권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3월4일(목) 온라인으로 입학예배를 드렸습니다. 입학 축하 가랜드 아래 사탕목걸이를 건 귀여운 꾸러기들, 부모님들, 교장선생님과 교사들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신 장영미 전도사님까지 모두 모여 즐겁게 제 30회 꾸러기학교 입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5일(금)은 드디어 처음 등교하는 날! 7살 이로운, 이소리, 최민용, 6살 권하성, 권하온, 박지산, 이가람. 모두 일곱 명의 꾸러기들이 모였습니다. 일곱 명의 적은 인원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한 명 한 명의 꾸러기들이기에 정성을 다해 맞이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의 수고를 나누는 꾸러기학교입니다.

첫날이라 영성한 구석이 많았지만 꾸러기들이 행복했던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모두가 월요일에 다시 오고 싶다고 했거든요!

< 교사 : 전향옥 >

있는 아이들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습니다.

이번주는 오래간만에 마스크를 쓰고 장시간 있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오전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어린이학교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님들을 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

< 교사 : 권재만 >

멋쟁이학교

2주 간의 온라인 수업을 마무리하고 3월 첫주는 새학기를 위해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오후 8시 사랑방공동체 홈페이지 생방송으로 재학생 개학 및 신입생 입학식이 진행됩니다.

풋풋한 신입생들을 소개하는 영상과 따뜻한 마음으로 반겨주는 재학생들의 영상이 준비되어있습니다.

한 곳에 모일 순 없지만, 한 마음으로 서로의 시작을 응원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 교사 : 장성아 >

어린이학교

지난 일요일에는 온라인 사은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마다 마음을 담아 영상과 메세지를 준비했고 선생님들께 직접 선물도 배달했습니다. 서로 안아주지 못했지만 눈물바다가 된 온라인 사은회였습니다.

3월 2일 드디어 2021년 입학식날이 되었고 얼굴을 보니 반가움이 더 커졌습니다. 너무 익숙하게 체온체크를 하고 거리를 유지하며 새롭게 들어온 신편입생들을 환영했습니다. 이제 시작된 어린이 생활이지만 어린이들에게 거리 유지하라는 말을 하며 익숙하게 체온체크를 하고 계속 마스크를 쓰고

배움과 가르침

“ 사랑방 가족들 모두 보고 싶습니다 ”

벌써 3월을 지나고 있네요. 정말 시간이 살같이 빠릅니다. 2020년도는 그리고 시간이 안가더니 시간도 마음에 따라 속도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백신이다. 치료제다 라는 소식들이 들리니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어봅니다. 이 안에 있는 학교들도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부푼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순간순간 대안학교라는 또 다른 시각으로 압박을 받을 때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요즘 코로나로 만남이 자유롭지 못하므로 뜬금없이 흩어져있는 식구들의 소식이 궁금하고 갑자기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지요? 모두들 평안하시죠? 땅 위로 연한 쌩들이 보이네요. 봄은 희망과 밝음과 생명이 느껴지는 계절이 분명합니다. 이 예쁜 계절이 끝나기 전에 사랑방 식구들이 함께 예배도 드리고 마당에서 환한 얼굴로 만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올해 사랑방공동체의 표어가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입니다. 저는 요즘 틈틈이 말씀을 읽고 외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전에 다 외웠던 말씀인데도 (분명 나이탓) 생각이 안나서 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그중에 로마서 12장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구절마다 조목조목 하나님의 자녀로써의 개인적인 삶의 자세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시는 지혜의 말씀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도 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기도도 하며, 은혜도 받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에서 어려움이 되는 것은 각자의 역할을 바르게 행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모자람도 아니고 지나침도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로 주신 고유한 삶의 뜻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속해있는 공동체에서 자기 분수에서 이탈될 때 누군가에게 혹은 전체에 상처가 되고 아픔을 줄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문제는 공동체에서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여기서 자유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사랑방 식구들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점검하면서 겸손하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수시로 교만해져서 불화의 원인이 되는 연약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기간에 작은 것이라도 삶이 변화하여 공동체에 덕이 되고 나아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같은 삶을 주셨는데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았는지 제게 주신 뜻을 잘 살고 있는지 잡 들기 전에 말씀을 외우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월영 사모

함께사는 이야기

〈수요 정오기도회〉

말 쓰 : 마태복음 6:20-23

인 도 : 해 은 전도사

기 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인구 위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다고 미국 경제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구 통계학자들은 역사적으로 전쟁이나 전염병, 경제 위기 등 충격에 따른 출산율 하락이 일시적 현상으로 그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있다며 위기가 길어지면 출산율이 정상화되지 않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2) 교회 간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예수원>

1. 한국교회의 부흥과 쇄신, 세계선교를 위한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일군을 보내주시길
2. 예수원 밖에서 사시는 예수원 친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원과 서로 소통하며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가도록 기도합시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각 개인적인 처소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공동체 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개학을 했습니다. 제한된 시간과 공간 가운데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 생활공동체 소식 〉

지난 주는 정말 놀라운 날씨를 경험했습니다. 봄이 되어 따뜻한 향풍이 부는가 했더니, 반가운 봄비로 내리던 비가 어느새 눈으로 바뀌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어 버렸습니다. 한 겨울에 내리는 눈처럼 발목 너머까지 수북이 쌓여서 색다른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었습니다. 무림리는 온전한 겨울왕국이 되었지만, 그 많던 눈이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녹아 없어지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린이학교와 꾸러기학교는 개학을 해서, 일부 등교하기도 하고 온라인 등교를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돌아오니 공동체에 점차 활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멋쟁이학교가 온라인으로 입학 및 개학식을 할 예정입니다. 새 학기를 맞은 모든 학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 정재훈 전도사 >